

안병훈 · 김시우 · 왕정훈, '마스터즈' 출격

남자 골퍼 '꿈의 무대' 출전 자격 기준 충족... 재미교포 케빈 나 · 제임스 한도 출전

모든 골프선수들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는 엄선된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출전선수는 90명 안팎에 불과하다. 남자골프의 다른 3개 메이저대회(140명 안팎 출전) 가운데 가장 적은 '필드'다. 1934년 시작된 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는 1957년 2라운드 후 컷트 제도를 도입했다. 그 이후 지난해까지 치러진 50차례 대회에서 출전자수가 100명을 넘은 것은 세 차례(1957, 1962, 1966년) 뿐이다. 그만큼 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어렵고 내로라하는 골프선수들에게도 '가문의 영광'이 된다. 한국에서는 한장상이 1973년 첫 출전했고 그 뒤를 최경주(SK텔레콤), 양용은, 김경태(신한금융그룹), 배상문(캘러웨이), 노승열(나이키)이 이었다. 아마추어로는 김성윤, 안병훈, 한창원, 정연진, 이창우, 양건이 꿈의 무대를 밟았다. 올해 한국선수들은 안병훈·김시우(이상 C대한통운), 왕정훈(캘러웨이)이 출전한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함께 최다 인원 출전이다. 이 대회에 출전하려면 17가지의 '자격 기준'에 들어야 한다. 그 첫째는 역대 이 대회 우승자다. 그들은 원하면 평생동안 이 대회 자동출전권이 주어진다. 그리고 최근 5년내 US오픈·브리티시오픈·USPGA 챔피언십 우승자, 최근 3년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자에게도 출전권이 부여된다. 지난 1년간 미국PGA투어 정규대회 우승



2017마스터즈 골프 토너먼트에 출전하는 한국선수 안병훈·김시우(이상 C대한통운), 왕정훈(캘러웨이)

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계랭킹 50위 내 선수들에게도 초청장이 날아간다. 또 아시아·태평양 및 라틴 아메리카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자와 US·브리티시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우승자에게도 정상급 프로들과 기량을 견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올해는 모두 94명이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세계랭킹 23.6위인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제이슨 데이(호주), 조던 스피스(미국)는 무려 일곱 가지 출전

기준을 충족시키며 첫 승 또는 2승에 도전한다. 한국선수들은 안병훈이 지난해말 현재 세계랭킹 50위내 기준, 김시우는 지난해 미국PGA투어 우승과 투어챔피언십 출전 등 두 가지 기준, 왕정훈은 대회 직전 세계랭킹 50위내 기준을 충족시켰다. 안병훈은 2009년 US아마추어골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그 이듬해에 처음 출전했다. 안병훈은 지난해에도 출전했으나 컷트

탈락했다. 올해가 세번째 출전이다.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CC는 처음 출전한 선수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세 명의 한국선수 가운데 안병훈에게 기대를 걸만 하다. 또한, 재미교포 케빈 나, 제임스 한도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내셔널CC에서 시작된다. /김민근기자

전북도체육회 학교스포츠 활성화 위한 간담회

전라북도체육회가 4일 학교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체육회,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각 유관기관 관계자 42명이 참석하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2017년 학교스포츠 클럽대회의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대회의 효율적인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목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함께 논의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건전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김민근기자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설명회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지관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시 노원구 한국스포츠개발원 강의실에서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지관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초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의 기업·산학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사업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모 일정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11개 지자체에 약 2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방식은 기초지자체가 지역 스포츠자원과 해당 지역만의 비교우위를 가진 관광산업을 결합해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공단에 사업비 지원을 제안해 진행하는 맞춤형이다. 비용은 국비 보조금 최대 3억원과 지방비 최대 3억원을 50% 대 50%로 매칭할 수 있다. 선정된 지자체는 연차평가기를 통해 최장 3개년까지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공단측은 "작년에는 제천시, 청송군, 전주, 고성군, 춘천시, 영주시를 포함한 6개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했다. 관광 프로그램 참가 관광객 1만8889명 모객과 함께 총 13억8000여만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일자리 195명 창출, 상표등록 4건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금의환향' 최다빈 "금메달보다 평창 티켓 확보 더 기뻐"

세계선수권 여자 싱글 합계 191.11점 전체 10위 달성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 톱10 진입으로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티켓 2장을 확보한 여자 피겨의 최다빈(17·수리고)이 "아시아게임 금메달보다 더 기쁘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최다빈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다빈은 지난 1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끝난 세계선수권 여자 싱글에서 합계 191.11점을 얻어 전체 10위에 올랐다.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모두 개인 최고 점이었다. ISU는 이번 대회 1.2위 선수 국가에는 평창 대회 출전권 3장을 3~10위 선수 국가에는 2장의 티켓을 내걸었다. 최다빈이 가까스로 상위 10명에 포함되면서 한국 여자

피겨는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2명의 선수를 내보낼 수 있게 됐다. 최다빈은 "쇼트 프로그램이 끝난 뒤 부담이 꽤 눈물이 날 뻔 했다"면서 "(프리스케이팅) 마지막 선수의 연기가 끝난 뒤 내가 10위라는 것을 확인했다. 180점대를 예상했는데 너무 높은 점수가 나왔다. 생각도 못했던 점수라 많이 놀랐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티켓 1장을 목표로 세계선수권에 나갔는데 2장을 따게 돼 너무 행복했다. 준비한 것을 다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덧붙였다. 직접 헬싱키까지 날아가 출전권을 따오기는 했지만 최다빈이 평창행을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다빈은 자신이 가져온 2장의 출전권을 두고 박소연(20·단국대), 김

나현(17·과천고) 등과 7월 이후 개최될 선발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조급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최다빈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2월 한국 피겨 선수로는 최초로 동계아시아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샷포로보다 헬싱키에서의 기분이 훨씬 좋다고 했다. 최다빈은 "올림픽 티켓이 걸려 있었기에 이번 톱10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내가 나갈 수도 있고, 다른 선수가 나갈 수도 있지만 출전권을 따온 것 자체로 기쁘다"고 활짝 웃었다. 동료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앞둔 최다빈은 "올림픽에 출전은 하고 싶지만 컨디션이 어떻게 달라질 지 모른다"면서도 "모든 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듯 나도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민근기자



프로야구 전용 앱 'U+프로야구' 다운로드 10만 돌파

IG유플러스는 프로야구 전용 앱 'U+프로야구'가 출시 3일 만에 다운로드 10만 건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힘입어 IG유플러스는 잠실 야구장에서도 직관적인 광고를 무기로 열띤 홍보활동에 돌입한다. 잠실 야구장 왼쪽 외야 조명탑과 실내 1루 편외의 공간 이동 광고 등에 U+프로야구만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직구, 슬라이더 등 야구 구질에 맞춘 네이밍으로 제작했다. 전광판에서도 합동 요청 요청 시나 타 구장 경기 소식을 알릴 때 U+프로야구 앱의 주요 기능인 통진 장면 돌려보기와 5경기 동시시청 기능을 소개한다. U+프로야구는 ▲특급순간 돌려보기 ▲빙금 던진 공보기 ▲타자 대 투수 실시간 전력분석 ▲1번의 응원팀 맞춤 화면 ▲모바일로 최대 5경기 동시 시청 ▲광고 없이 바로 영상 재생 등 6가지 기능을 담았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